



## John 19

요한복음 19  
Tape #8087  
By Chuck Smith

*Then Pilate therefore took Jesus, and scourged him (19:1).*

The scourging by the Roman government was a method by which they elicited confessions from accused criminals, usually from convicted criminals. It was a very torturous thing, a prisoner was tied to a post in such a way that his back was extended. And then they would lay across the back this whip that had little bits of glass and lead embedded in it that was designed to sort of rip the flesh as it was pulled off. Very painful and it was used by the Romans, as I said, to elicit confessions. The idea being that if a person would confess of a crime, they would be a little more lenient on the next time they brought the whip on his back. There would be a scribe standing by to write down the confessions of the crimes and this way, they were able to clear the books on many of the unsolved crimes in the community. 채찍질은 기소된 죄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로마 정부가 사용하던 한 방법이었다. 대개는 기결수에게 매질을 가하곤 하였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처벌로서, 죄수를 기둥에 붙들어 매고 등 가죽이 터지도록 때리곤 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유리 조각들과 납 조각들이 박힌 채찍을 들어 잔등을 이리저리 쳤다. 그럴 때마다 등이 갈라지고 살점이 채찍에 묻어나오곤 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로마 사람들은 그런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받아내곤 하였다. 죄인이 자백을 하면 다음 번에는 채찍을 약간 더 약하게 가하곤 했다. 그 옆에는 서기가 대기하고 서 있다가 자백을 할 때마다 받아 적곤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 미제의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It was a common practice to scourge the prisoners before they were crucified. Again, clearing up a lot of the unsolved crimes. It was unlawful to scourge a Roman citizen without his being already condemned but they would use it as sort of a third degree torture to get the prisoners to confess to crimes.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기 이전에 채찍질 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였다. 다시 말하는데, 그들은 그런 방식을 통해 여러 미제의 범죄 사건을 해결하곤 했다.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로마 시민을 채찍질 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치졸한 고문 방식을 사용하여 죄수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곤 하였다.

In ordering Jesus scourged, it was no doubt to get Him to the confession of His guilt concerning the charges that were brought against Him by the Jews.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Pilate was convinced of His innocence and yet had Him scourged. But when we read in the Old Testament, Isaiah chapter fifty, that “He would give His back to the smiters” (Isaiah 50:6), and as we read in Isaiah 53,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and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stripes we were healed” (Isaiah 53:5), we realize that even though it was inconsistent with Roman justice, to subject an innocent man to this kind of torture, it was something that was designed and planned by God that not only should His Son suffer death upon the cross but that His Son should also be scourged. But Isaiah in speaking of this scourging, in prophesying it, said, “And as a lamb before its shearers is dumb, so He opened not His mouth” (Isaiah 53:7). He had nothing to confess. And thus, there is cause to believe that He received the full brunt of the whipping because the idea was, if they did not confess the next lash would be harder. And continually harder until a person would be forced by the pain to cry out the confessions of his crimes. Jesus bore that suffering but as Isaiah said,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예수에게 채찍질하도록 명한 것은, 그분으로부터 죄의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고소한 일과 관련하여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빌라도가 그분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채찍질을 가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사 50:6).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5).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죄한 사람을 그런 고문에 처하는 것은 로마의 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의도하신 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채찍질을 당할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어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채찍질 당하는 사건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 53:7). 그분에게는 자백하실 일이 하나도 없었고 입을 여실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그분은 그 심한 채찍질을 그냥 그대로 다 당하셔야만 하였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 번 채찍질은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점점 더 심해져서 마침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못 배길 지경으로 만들곤 하였다. 예수님이 당한 고초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He was suffering for us. One of the consequences of sin in the world is suffering. All of the suffering of the world can be traced back to the introduction of sin. It is sin that brings suffering to humanity and Jesus is there suffering for us because of the sin, that we might be healed.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의 결과 중 하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인류에게 고통이 주어진 것이 죄로 인한 것이기에, 예수님도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던 것이다.

*And the soldiers platted a crown of thorns, and put it on his head, and they put on him a purple robe, And they said, Hail, King of the Jews! and they smote him with their hands (19:2,3).*

Jesus is now being mocked. Jesus is now being abused by the Roman soldiers. They made a crown of thorns and pressed it on His head. Interesting. Where did the thorns come from? Going back to the garden of Eden when man disobeyed God, and God was announcing to man the results of sin and disobedience, He said, “Cursed be the ground. Thorns and thistles shall it bring forth” (Genesis 1:17,18). The thorns are the result of the curse. They say that a thorn is an undeveloped blossom. When the curse is removed, can you imagine how beautiful the desert will be? When every thorn becomes a blossom once again. But the thorns came from the curse of sin. And thus, quite appropriate. He came to suffer for sin. To take the curse of sin. And thus, thorns caused by the curse are placed upon His brow as the soldiers mockingly hail Him the King of the Jews, as they put on a purple robe and do feigned obeisance and then they smite Him with their hands. 예수님은 지금 조롱을 당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학대를 당하고 계신다. 그들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그분의 머리에다 씌웠다. 흥미로운 일이다. 그 가시가 어디서 유래하였는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에덴 동산에서 유래했다. 하나님은 그 즉시 인간에게 죄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선언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 3:17,18). 가시는 저주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가시는 발달하지 못한 꽃봉오리라고 한다. 저주가 제거된다면 광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가? 모든 가시들이 다시 한 번 꽃봉오리가 된다면 광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가? 가시는 저주 받은 죄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 때문에 고난 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은 극히 적절한 일이었다. 죄의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주로 인해 생겨난 가시를 그분의 이마에다 놓은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 후 군병들은 그분을 보고 희롱 조로 ‘유대인의 왕이시여’라고 말하며 그분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흉내를 냈다. 그러다가는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곤 하였다.

*Pilate therefore went forth again, and said to them, Behold, I bring him forth to you, that ye may know that I find no fault in him (19:4).*

Quite a confession because if he found no fault in Him, then why would he have Him scourged? It is thought that Pilate felt that the scourging would placate their bloodthirsty desire for His death. That they would be satisfied if He were subjected to this horrible torture of the scourging. According to the historians, many times the prisoners would not even survive the scourging. Many times they would bleed to death or die during this torture. He said, I’m bringing Him forth to declare to you, I find no fault in Him. Again God protecting the innocence of Jesus. Making sure that we know that He was innocent. That He was the innocent one suffering for the guilty. Judas said,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Matthew 27:4). Pilate said, I find

no fault in Him. Pilate's wife sent a message to him and said,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just man: I've suffered many things in a dream because of Him" (Matthew 27:19). And the thief on the cross said, He has done nothing amiss" (Luke 23:41). 이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이다. 만일 그가 그분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가 왜 그분에게 채찍질을 하도록 허용했는가 말이다. 채찍질을 하다 보면 그분을 죽이려 하는 저 피에 굶주린 폭도들의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으리라고 빌라도가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분에게 그 끔찍한 형벌을 가하도록 내버려두면 저들의 마음이 흡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경우 죄수들은 그 채찍질을 견디지 못했다고 한다. 많은 경우 그들은 그런 잔혹한 형벌을 받는 동안에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고 한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다: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변호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분은 무죄하신 자로서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안다. 유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 27:4). 빌라도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빌라도의 아내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언하였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마 27:19).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눅 23:41).

*Then came Jesus forth, wearing the crown of thorns, and the purple robe. And Pilate said unto them, Behold the man (19:5)!*

A man like Pilate had never met before. It's interesting as you read this story of Jesus before Pilate, it is more or less like Pilate is the one that is on trial here rather than Jesus. Jesus has sort of taken control. It says, Though He is in control which indeed He was of the events, Pilate was the helpless one. Pilate was the puppet. He was the one that was caught up in this whole movement and he was the helpless one. Jesus was the one who was in control. 빌라도 이런 사람을 난생 처음 취조하고 있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 흥미롭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심문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빌라도인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신 듯이 보인다. 그분이 통제권을 가지고 일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반면, 빌라도는 무력한 존재처럼 보인다. 빌라도는 꼭두각시인 듯하다. 그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끼여서 움작달작을 못한다. 예수님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When the chief priests therefore and the officers saw Jesus, they cried out, saying, Crucify him, crucify him. Pilate said unto them, Take ye him, and crucify him: for I find no fault in him. Then the Jews answered him and they said, We have a law, and by our law he ought to die, because he made himself the Son of God (19:6,7).*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the Messiah would be the Son of God. Because the prophecy said,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s: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Isaiah 9:6). A scripture that they recognized as prophetic of the Messiah. A Son is given. God is giving His Son.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예언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로 인정하는 책이었다.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게 되어 있었다.

When Peter responded to the question of Jesus, "Who do you say that I am? He sai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Matthew 16:15,16). When Jesus was being interrogated by the high priest, He said, Are you the Messiah? Jesus answered, You said it. He said, Are you then the Son of God? Because the Messiah according to their belief would indeed be the Son of God. And Jesus again answered, You've said it. The priest tore his robe and said, Why do we need any further witnesses? You've heard himself. You've heard from his own mouth the blasphemy. What do you say? They said, He is worthy of death" (Matthew 26:63-66).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5,16). ‘네가 메시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응수하셨다. 그는 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하고 물었다. 그들의 믿는 바에 따르면 메시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말했다: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이 어떠하뇨?’ 그들이 대답하였다: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마 26:63-66).

*When Pilate though heard the claim of Jesus, he was even more afraid (19:8);*

He was fearful of Jesus. He never had a man quite like this before. Behold the man! I believe he really admired Jesus.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서웠다. 그는 이전에 그런 인물을 대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보고 찬탄하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And so he went again into the judgment hall (19:9),*

Took Jesus back inside for further interrogation. 그는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 추가 심문을 하고자 했다.

*and he said unto Jesus, Where are You from? But Jesus did not answer him. Then Pilate said unto him, Don't you speak to me? don't you know that I have the power to crucify you, and I have the power to release you (19:9,10)?*

Here Pilate is really inditing himself because he's acknowledging, I have the power. I can have you crucified or I can release you. He's acknowledging that he possessed that power. Thus in allowing Jesus to be crucified, he has to take responsibility because he had the power to release Him. 여기서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는 너를 십자가에 달 수도 있고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 그는 자기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그 책임 또한 져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었기 때문이다.

*But Jesus answered [and His answer wasn't very comforting to Pilate 그런 이 대답은 빌라도에게는 크게 위안이 되는 게 아니었다], You could have no power at all against me, except it were given to you from above: therefore he that delivered me unto you has the greater sin (19:11).*

You're sinning but they have the greater sin. Theirs is a sin against knowledge. Pilate really doesn't know quite what's going on. And theirs is the greater sin. 너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너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몰라서 짓는 죄가 있다. 빌라도는 진실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 그에 비하여 저들의 죄는 더 큰 것이었다.

*And from that time Pilate sought to release Jesus: but the Jews cried out, saying, If you let this man go, you are not Caesar's friend: whosoever makes himself a king speaks against Caesar (19:12).*

They're pulling out their trump card. They had already made complaints against Pilate. There had been official complaints against him. There wasn't any real love lost between the Jews and Pilate. There was a lot of irritation there. And another complaint to Caesar would put Pilate in bad light. They knew it. They knew that they had Pilate more or less over the barrel. They were playing their cards out well as they bring up the issue of Caesar. You will not be looked upon as Caesar's friend if you allow a man to claim Himself the King. 유대인들은 이제 비장의 무기를 빼어 들었다. 그들은 이미 빌라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빌라도에 대해선 공식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었다. 유대인과 빌라도 사이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었다. 서로에 대해서 짜증만 많이 내고 있었다. 가이사에게 한 번만 더 호소한다면 빌라도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빌라도를 움작 달작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잘 요리하고 있었다. 가이사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When Pilate therefore heard that saying, he brought Jesus forth, and sat down in the judgment seat in a place that is called the Pavement, but in the Hebrew, Gabbatha. And it was the preparation of the passover, and it was about the sixth hour: and he said to the Jews, Behold your King! But they cried out, Away with*

*him, away with him, crucify him. Pilate said unto them, Shall I crucify your King? The chief priests answered, We have no king but Caesar (19:13-15).*

Quite a statement for the religious leader of the people. Quite a statement. Quite a confession. You see, the chief priests were not really spiritual men. They were using religion for their own profit and their own gain. They were extremely wealthy men because they had learned a way to profit off of religion. Their king really was their desire for power, for money. Pilate realized that the charges against Jesus were just trumped up charges. They were fearful that if Jesus were allowed to continue to minister, that all people would go after Him. They would lose their power. They would lose their position. And so this acknowledgment, “We have no king but Caesar.” 종교 지도자가 한 말치고는 이견 엄청난 발언이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말이다. 고약한 고백이다. 보다시피, 이 대제사장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사실은,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이 그들의 왕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고소는 날조된 것일 뿐임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놔둔다면 머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좇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권력을 잃게 될 것이고 지위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점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런 성명(聲明)을 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It's interesting that in the subsequent years, there did develop in Rome the deifying of the Caesar. Every year, a person would have to offer incense to the image of Caesar and declare that Caesar is lord. It was required of those in the Roman community. The Christians would refuse to acknowledge that Caesar was lord. It was a capital offense not to acknowledge Caesar as lord. Thus when the Christians would refuse to acknowledge that Caesar is lord, they would be put to death in very cruel and torturous ways. 후대에 이르러 로마에서 가이사 즉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이 발생했으니 흥미로운 일이다. 사람들은 매년 황제의 신상 앞에서 분향하며 황제를 주님으로 선포하여야 하였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매우 잔인하고 혹독한 방식으로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가곤 했다.

There's a very interesting book called *Fox's Book of Martyrs* and he lists in his book the martyrs for Jesus Christ in the first few centuries of the church and many of the accounts tell of how that the executioner pleaded with the person to just say Caesar is lord because the executioner had pity on them and did not want to execute them. But the Christians would refuse to do so and millions of them actually went to their death for refusing to say that Caesar is lord. 팍스가 쓴 ‘순교자들’이란 책이 있다. 흥미로운 책이다. 그는 그 책에다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 그 책 속 여러 군데서, 형을 집행하던 관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말만 하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한편 그들을 구해주고 싶어서 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권유를 따르기를 거절한다. 실제로, 수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죽음을 선택했다.

But here the chief of the Jews' religious system were saying, We have no king but Caesar. They refused to acknowledge the kingdom of God in their lives.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라. 유대 종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Then delivered he him therefore unto them to be crucified. And they took Jesus, and led him away (19:16).*

The custom was, there were four soldiers that were given the duty of crucifying the person. The person was required to carry his own cross and there would be a soldier that would go in front of him holding a sign which was the accusation and the charge for which he was being crucified. They would go outside of the city because under the law they could not crucify them within the city but they would usually take sort of a circuitous route through the city to go outside so that more people could see the prisoner and see the charges against him to put the fear of the law in the hearts of the people. Three soldiers would march behind the

prisoner and they would make their way through the streets of Jerusalem and then out to the place called Golgotha, the place of the skull, where they would then nail him to the cross that they had carried and put the cross in the ground and the prisoner would hang there until he died. 관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 군사가 필요했다.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였으며, 한 명의 군사가 그 앞에서 행하며 죄목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아갔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였다.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는 십자가 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개 그들은 도성 안을 이리저리 한참 돌다가 성 밖으로 나가곤 하였다. 이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죄수와 그의 고통을 보여주어 그들로 율법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다. 세 명의 군사는 죄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의 거리를 돌아다닌 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장소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죄수가 지고 온 십자가를 세운 뒤 그 위에다 죄수를 달아 죽기까지 내버려 두었다.

The Romans would let the prisoner just hang there until they died of suffocation ultimately. And sometimes they would hang there for days before they would die. It was a horrible, torturous method of putting people to death. But the Jews had a law, interestingly enough, a law that dealt with hanging on a tree. 로마 사람들은 죄수를 십자가에다 단 후 질식사 할 때까지 내버려두곤 했다. 가끔 죄수들은 수일 간 거기 달려 있다가 죽곤 했다. 십자가는 사람을 처형하는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었다. 그러나 아주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나무에 다는 것과 관계되는 한 율법이 있었다.

In Deuteronomy, chapter twenty-two, there was this law given that if a person was hanged that they should not allow them to stay overnight. In other words, they were to see that death came and they weren't to keep them overnight. Twenty-one, twenty-two: "And if a man has committed a sin worthy of death, and he be to be put to death, and you hang him on a tree: His body shall not remain all night upon the tree, but thou shalt in any wise bury him that day; (for if he is hanged on a tree he is accursed of God;) that the land be not defiled, which the LORD thy God giveth thee for an inheritance" (Deuteronomy 21:22,23). So if they hung a person on a tree, they were not to allow him to be there overnight and they were to bury him that day. It's interesting that the Jews to the present day have the custom of burying the person the day they die. Rabin was sort of a special case as they were waiting for all the dignitaries to get there. but it is traditional in the Jewish culture to bury the person, because of this scripture, the day they die. 신명기에 보면 이런 율법이 나와 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을 그 날 밤이 지나도록 거기다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것이 판명났으면 그 날 밤이 되기 전에 나무에서 끌어내리라는 것이다. 21장 22절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 21:22,23). 사람을 나무에 달라 처형하였다면, 그 시신을 밤새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 날 안으로 매장하도록 해야 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당일에 매장하는 관습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빈의 장례식은 예외였다.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매장을 하지 않고 기다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인 문화에서는 고인을 죽은 그 당일에 매장하게 되는데, 이는 방금 지적한 성구 내용 때문이다.

Paul makes mention of this particular verse in Galatians as he is saying that "Christ suffered the curse for us: because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that hangeth upon the tree" (Galatians 3:13).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특이한 성구를 지적하며 언급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3:13).

So they led Him away to be crucified. Now the sign that the soldier would carry in front of the cross was then nailed on top of the cross above the prisoner's head so that everybody that saw them hanging there would know the charges against them. 어쨌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십자가보다 앞서 진행하는 군사가 메고 가던 팻말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 바로 머리 위에다 못으로 박아 놓았다. 그리하여 지나가던 사람은 누구나 다 그가 무슨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So Jesus bearing his cross went forth into a place called the place of a skull, which is called in the Hebrew Golgotha (19:17):*

In Latin, it is Calvary. 라틴어로는 ‘갈보리’이다.

*Where they crucified him, and two others with him, on either side one, and Jesus in the middle (19:18).*

Greek, it's Calvary. Latin, this would be Cranium. 희랍어로도 ‘갈보리’인데, 이 말은 라틴어로 ‘두개골’이라는 의미이다.

*And Pilate wrote a title, and put it on the cross. And the writing was [and this is the accusation 이것이 바로 죄명이었다],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This title then read many of the Jews: fo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o the city: and it was written in Hebrew, and Greek, and Latin. Then one of the chief priests of the Jews came to Pilate and said, Don't write, The King of the Jews; but that he said he was the King of the Jews. Pilate answer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19:19-22).*

It's interesting, Pilate is real adamant in this, in a minor thing. The major thing was he gave in on the major thing and that was the crucifixion. Here on the minor thing, he's holding tough. And it's an inconsistency that we often see in life. People can allow major. Like Jesus said, "You strain at a gnat, but you swallow a camel" (Matthew 23:24). And that's quite often the case with people. They hold tight on little non-consequential issues but on major issues, they cave in. So "Pilate declar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흥미로운 것은, 빌라도는 이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참으로 결단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중요한 사항은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양보를 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소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가 끝까지 밀고 나아갔다. 이런 부조리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 사람들은 곧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 23:24). 사람들은 아주 자주 그렇게 처신한다. 그들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만다. 본문에서도 그랬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The soldiers, when they had crucified Jesus, took his garments, and they made four parts, to every soldier a part (19:23);*

As I said, there were four soldiers involved in getting the prisoner from the judgment hall out to the place of crucifixion. And thus, there were five parts to the Jewish garment and each one threw dice for which part he would get. But then they came to the tunic, the robe and it was special. Now generally, they just cut it in four pieces and the guy would get a fourth of it. But they said, This is too nice to cut. Let's go ahead and throw dice to see who gets the robe. And so they cast lots to see who would get the robe and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is again was the fulfillment of prophecy in Psalm 22. It declared, "They will part my garments among them, but for my vesture they will cast lots" (Psalm 22:18). That was written a thousand years before the crucifixion of Jesus. 내가 앞서 얘기한대로, 죄수를 재판 법정에서 끌고 나와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가는 데는 네 명의 군사가 필요했다. 유대인의 옷은 다섯 조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들 군사들은 각자가 그 중 어떤 조각을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주사위를 던졌다. 그런데 속옷이 문제였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속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고 한 사람이 그 하나씩 취하곤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 옷은 찢어 나누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한 사람이 다 갖기로 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 옷을 가질 자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여기서 다시 흥미로운 것은, 그것으로 인해 시편 22편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저희가 내 걸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시 22:18). 이 성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A note here,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o the city. Today in Jerusalem, across from the wall of the city that goes between the Damascus gate and Herod's gate, there is across the valley there a short distance of maybe two hundred feet, the side of the mountain which was Mount Moriah. Because the temple was built on the site of Mount Moriah. It is the top really of Mount Moriah, the valley has been formed because of a quarry, the stones there are just naturally sort of in stratum and they made great building

stones because they were flat and lying in strata. So all they had to do is drill holes, put the wooden pegs in and soak the wooden pegs until they swelled and they could split these rocks. They used them for Solomon's temple and they used them for much of the building in Jerusalem. Herod used the stones and there was this large quarry in this particular area on the north side of the city of Jerusalem because it did lend so well to making building blocks. And thus this valley was formed.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가 예루살렘 도성 근처라는 점이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 보면, 다메섹 문과 헤롯 문 사이의 성벽 맞은 편 골짜기 건너편으로 200피트쯤 되는 짧은 거리에 모리아 산이었던 산록이 있다. 성전은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다. 성전은 원래 모리아 산 꼭대기에 건립되었으며, 골짜기는 채석장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거기 있는 돌들은 원래부터 층으로 쌓여져 있었으며, 대단한 건축 자재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평평하게 층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석수들은 그저 구멍을 뚫고 거기다 나무 못을 박은 뒤 물을 붓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무가 팽창하여 마침내 그 돌들이 쪼개졌다. 그런 돌들을 사용하여 솔로몬 성전을 지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상당 수도 그런 돌들을 사용하여 지은 것이었다. 헤롯도 이 돌들을 사용하여 성전을 지었다. 예루살렘 도성 북쪽의 이 특정 지역에는 큰 채석장이 있었다. 거기서는 건축 자재가 아주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런 골짜기가 형성되게 되었다.

Originally, Abraham's time, it was just a straight mountainside up to the top but when Jerusalem became then a city, this was the area where the stone was quarried for the city and it's quite easy to see when you are there. On the wall, as you look at the wall from the street side, the modern street side, you see that the bedrock goes way on up. You can see that the actual natural hillside, the wall was built on top. And then you can look over the other side where the top of Mount Moriah is and you see the same thing that the cliff there has been formed as a result of the quarry. The side of the mountain has the appearance of a skull. It looks like the eyes and the nose, the bridge of a skull and many believe that that is the place of the skull or Golgotha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a skull there on the side of the mountain. Very possibly the actual site of the crucifixion of Jesus. If so, then people on the wall of the city of Jerusalem, looking across could see Him hanging there and of course, could hear Him as He uttered His seven sayings from the cross. 원래 아브라함 시대에는 산 꼭대기까지 산줄기가 곧장 뻗어 있었던 것인데, 예루살렘이 도시가 되고 나자 이 지역은 그 도성 건설에 쓸 돌을 캐내는 곳이 되었다. 그곳에 가면 쉽게 그 변천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벽에 올라 도성 거리를 내려다 보면, 현대식 거리를 쳐다보노라면, 돌을 캐낸 자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릉지 위에도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이다. 모리아 산이 있는 건너편을 쳐다보면, 돌을 캐낸 결과로 절벽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산허리는 앙상한 해골 모양을 하고 있다. 눈도 있고 코도 있으며 마치 두개골을 연결해 놓은 듯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해골의 곳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산록에 해골 모양의 것이 있어서 이곳이 골고다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바로 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올랐던 사람들은 건너편을 쳐다보다가 거기에 달려 있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물론 그분이 십자가에서 토로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The place there is right next to an ancient garden, a garden that was replete with cisterns and all for the watering of the plants and the garden was also a place where in the rock wall they had hewn out certain tombs. I say that because as we get to the end of the chapter it says, "Now in the place where He was crucified there was a garden; and in the garden a new sepulcher, wherein never man had been laid. And they laid Jesus therefore because the Jews' preparation day; and the sepulcher was close at hand" (19:41,42). Many believe that what is today called the garden tomb is indeed the garden that was nea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and that that is actually the site of Golgotha, it does have a lot of merit to that.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옛날의 동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동산에는 우물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동산 식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동산에는 또한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들이 있었다. 이 장의 끝에 가면 이런 성구가 나온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 19:41,42). 오늘날, 동산의 무덤이라 불리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옆에 즉 골고다 옆에 있던 동산 안의 무덤이라고 여러 사람들은 믿고 있다. 충분히 그렇게 믿을 만하다.

So the prophecy was fulfilled as they did not tear His robe but they cast lots,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은 것은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다.

*And thus the scripture fulfilled, They parted my raiment among them, and for my vesture they did cast lots. These things therefore the soldiers did. Now there stood by the cross of Jesus his mother, and also his mother's sister, and Mary the wife of Cleophas, and Mary Magdalene (19:24,25).*

Four ladies standing by the cross. First of all, His mother Mary. You remember when Mary and Joseph brought Jesus into the temple to present Him to the Lord and this godly man who served the Lord was promised by God that he would not die until he had seen the Lord's salvation, the Messiah. When Mary and Joseph brought Jesus then, he lifted Jesus up and he said, Now Father, let Thy servant depart in peace for I have Your salvation. And then he turned to Mary and he prophesied to her of the greatness of her child but he said, A sword shall pierce also through your heart (Luke 2:25-35). And I'm certain that as Mary was standing there watching her Son being abused and crucified that a sword pierced her heart as she stood there watching Him. 당시 십자가 옆에는 네 명의 여인들이 서 있었다.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주께 바치려고 성전을 찾았을 때, 주님을 섬기던 한 노인이 살아 생전에 주님의 구원을 즉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노인은 아기를 번쩍 들어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고 그는 마리아를 향하여 그 아기의 위대함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눅 2:25-35). 나는 확신한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찌르듯이 아팠을 것이다.

Mary's sister was there. From the other gospels we know that it was Salome. Salome happened to be the mother of James and John which means that James and John were cousins to Jesus. Their mother was the sister of Mary. So they had known Jesus probably then from childhood because they were cousins to Jesus. She was there plus Mary, the wife of Cleopas. We know that one of the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when Jesus appeared after His resurrection, one of them was named Cleopas and so this perhaps was his wife. And of course, Mary Magdalene and what we know about her is that Jesus had cast seven devils out of her. She was from Magdala, that little village on the shores of the Galilee. Her life was miserable, she was tortured prior to meeting Jesus and she was devoted completely to Him because He had set her free. And she just followed Him and was totally devoted to Him. So the four women and we know that John, the disciple, was there. 마리아의 여동생도 거기 있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간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어머니는 마리아의 자매였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알았을 것이다. 서로 사촌간이었으니 말이다. 그 다음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서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였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닌가 한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 여인이다. 그녀는 갈릴리 연안의 한 작은 마을 막달라 출신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비참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고난을 당했으나 예수님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신 후에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이렇게 네 명의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서 있었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제자 요한도 거기에서 있었다.

*When Jesus therefore saw his mother [standing there, no doubt weeping 분명히 거기 울면서 서 있었을 것이다], and the disciple standing by her, whom He loved (19:26),*

Again, it's interesting. John is talking about himself but he doesn't call himself by name, he just refers to himself as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And we get this distinction concerning John. He's called John the beloved and we are told that he is the disciple that Jesus loved but we are told that only by John. We're not

told that in any of the gospels. It was just John sets that up for himself and says, I'm the disciple that Jesus loved. I believe that John no doubt felt that Jesus loved Him more than the others. And I believe that Peter probably felt that he was loved by Jesus more than the others, as did Matthew and the rest of them. I believe that Jesus had a way of dealing with people that every one of them felt special. They every one of them felt that Jesus was going to make them one of the chiefs in the kingdom. Because they were always arguing over that. Why would they argue over that but what they all felt that I'm special to Jesus. But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ey were all right. They are all special. And you are special. It's important though that you know it. To refer to yourself, I'm the one that Jesus loved. You're right. He loves you. You're special to Him and He wants you to know that you're special to Him.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do know that. You're very special to the Lord. There's no one in the world like you, as far as He is concerned. You're very special to Him. He loves you and He wants you to know that. John came to that recognition. I'm the disciple that Jesus loved.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면서도 그 이름을 대지 않고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다는 점이다. 요한은 이런 표현을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내가 바 있다. 그는 사랑 받는 요한으로 불려졌으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알려졌지만, 그런 명칭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하고 다녔다. 요한은 '예수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확신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베드로도 그런 식으로 믿었을 것이며 마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끔 하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기에 모든 제자들은 왕국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늘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곤 하였다. 왜 그들이 그렇듯 논쟁을 벌였을까? 그들 각자는 자기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느낌은 실은 모두 옳은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 그것은 옳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며 그분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은 주님께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그분의 눈으로 보는 한, 세상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은 그분께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요한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이다.

*He said to his mother, Woman, behold thy son (19:26)!*

He's not saying, Look at Me! But He is indicating John at this point. 예수님은 나를 보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And He said to the disciple, Behold your mother (19:27)!*

In other words, He is saying, Okay John, take care of her. Watch over her. The relationships that we have in Christ are often far closer than the human relationships that we have in our family. The brothers of Jesus at this point did not believe in Him. They did not believe until after His resurrection. And so there was a closer bond between John and Mary because of their common belief in Jesus as the Messiah. So John is commissioned by Jesus to take care of Mary. And John tells us,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다. 그렇다. 요한아, 이 분을 돌봐 드리거라. 그분을 지켜드려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된 관계가 우리의 인간적인 가족 관계보다 더 밀접할 때가 종종 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친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은 믿었다. 요한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에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봐 드리라는 부탁을 하셨던 것이다. 다음 구절을 읽어 보라.

*from that hour that disciple took her unto his own home (19:27).*

He took the commission of Jesus to take care of Mary. 요한은 마리아를 돌보라는 직임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 받았다.

*After this (19:28),*

That is, after taking care of the final filial relationships, taking care of His mother, now He enters into the

spiritual dimension and aspects of the cross. “After this,” 다시 말하면, 자식 된 도리를 마지막까지 다한 후에. 어머니를 돌봐드리도록 부탁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대하셨다. “이 후에.”

*Jesus knowing that all things were now accomplished (19:28),*

The purposes of God are being fulfilled.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아시고.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He said, I thirst (19:28).*

In Psalm 69:21, it declares that “They gave me vinegar to drink in my thirst.” That was the prophecy concerning the Messiah and so in order that it might be fulfilled, Jesus said, “I thirst.” 시편 69:21에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 “(시 69:21)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Now there was a vessel full of vinegar that was set there: and they filled a sponge with vinegar, and put it upon hyssop, and put it to his mouth. When Jesus therefore had received the vinegar, he said, It is finished (19:29,30):*

There was one little item of prophecy that had not yet been fulfilled and so Jesus said, I thirst, get that final item set and now that that’s accomplished, now that He tasted the vinegar, that scripture is fulfilled and so He said, It’s finished. It’s completed. It’s done. The prophecies are fulfilled.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말이다.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19:30).*

Or gave up the spirit. It’s a definition of death that is accepted today. When a person no longer has any brain activity, the heart can still keep pumping artificially but when the brain goes flat, the spirit is departed and a person is considered dead. And so He gave up His spirit. Luke’s gospel tells us that He sai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Luke 23:46). And “He bowed his head and dismissed His spirit.” Jesus had said, “No man takes my life from me, I give my life. For I have the power to lay down my life, and I have the power to take it up again” (John 10:18). No man takes my life from me. That sort of puts an end to that debate that’s been going on through the years as who is truly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Jesus: the Romans or the Jews? Jesus said, No man takes my life from me. I give my life. I have the power to lay it down. I have the power to take it up again. And so Jesus dismissed His spirit. 그리고는 그분의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정의로서 지금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표현이다. 어떤 사람의 두뇌가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을 때, 인공적으로 심장을 작동시키지만 두뇌가 정지했다면, 그 영혼은 떠나간 것이며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혼도 떠나갔다는 말이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분은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다고 한다 (눅 23:46).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요 10:18). 그 어느 누구도 나로부터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오래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하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로마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자: 그 어느 누구도 나로부터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내 생명을 버린 것이다. 나는 그것을 버릴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자기 영혼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신 것이었다.

*The Jews therefore, because it was the preparation, that the bodies should not remain upon the cross on the sabbath day (19:31),*

We already looked in Deuteronomy twenty-one there, and saw that it was the Jewish law that they weren’t to leave them hanging but were to bury them the same day. “That the body should not remain upon the cross on the sabbath day,” 우리는 앞에서 신명기 21장을 살핀 적이 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법이 죽은 자를 밤새도록 매달아두지 말고 그 날로 묻어라 고 명하고 있다. “그 시신을 십자가에 달아 안식일을 지나게 해서 안 되느니라.”

*(for that sabbath day was a high day (19:31),)*

The first day after passover was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hatever day it fell on, was a sabbath day and was to be treated as a sabbath day in that all of the laws that pertain to the sabbath day were fulfilled on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thus it was a high sabbath day. It is my belief that Jesus was crucified on a Thursday, rather than on the traditional Friday. That, that Friday was the first day of unleavened bread, thus the high sabbath day or the holiday of unleavened bread. The following day, Saturday, was the common weekly sabbath day so that His body then remained in the grave for three days and three nights, according to His own prediction. I think that the fact that John points out that that sabbath day was a high day, he points out that it was a special sabbath day, not the regular weekly sabbath but the sabbath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유월절 후 첫째 날은 무교절의 첫 날이었다. 무교절의 첫 날은 그 날이 무슨 요일이든지 간에 안식일로 지켰으며 안식일처럼 그 날을 지내야 하였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을 무교절의 첫 날에도 그대로 지켜야 하였다. 그러므로 그 날은 큰 안식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목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금요일은 무교절의 첫 날 즉 큰 안식일이었으며 무교병을 먹는 축일이었다. 그 다음 날 즉 토요일은 통상적인 안식일로서 그 날까지 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그분 자신의 예언처럼 무덤 속에서 3주 3야를 보낸 것이었다. 요한이 본문에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 날이 통상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특별한 안식일이었다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무교절의 안식일이었다는 것이다.

In the Jewish calendar, the day begins at sundown. So Jesus had the feast of the passover with His disciples on Wednesday night. The passover would go until Thursday night sundown. Then as I pointed out, Saturday would be the sabbath day and then Sunday He rose from the dead, the first day of the week. That's just my opinion and you can take it or leave it.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한 날은 일몰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요일 밤을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며 보내셨다. 유월절은 목요일 일몰 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지적하였듯이, 예수님은 토요일이 지난 후 즉 통상적인 안식일이 지난 후 일요일에 즉 그 주의 첫 날에 부활하셨던 것이다. 이런 계산법은 내가 제창한 것으로서,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So in order to hasten the death, they would take a mallet and they would break the legs of the prisoners. They would crush the bones and it would just bring on death. And because they didn't want the bodies hanging there on the sabbath day, they came with the mallets and they broke the bones of the thieves that were crucified with Jesus.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하여 군병들은 곤봉을 가지고 치기도 했으며 죄수의 발을 꺾기도 했다. 그들은 뼈를 부스러뜨리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죽음을 재촉하게 되었다. 시신들을 안식일까지 나무에 매달아두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곤봉을 가지고 왔으며 예수님과 함께 달린 도적들의 뼈를 부수었다.

*But when they came to Jesus, and saw that He was already dead, they did not brake his legs: But one of the soldiers with a spear pierced his side, and there came forth blood and water (19:33,34).*

There is a sac around the heart and when the heart ruptures, it fills with fluid and with blood. And there are doctors who have ascertained that Jesus died actually of a ruptured heart and that when the soldier pierced His heart, the idea was to make sure that He was dead. He appeared to be dead. Make sure, thrust the spear through His heart. And as he hit the little sac around the heart, the watery fluid with blood came forth and it's perhaps a good hint to us of His cause of death, a ruptured heart. 심장 주변에는 액낭(液囊)이 하나 있는데 심장이 파열되면 그 주머니에 물과 피가 가득 차게 된다. 예수님은 실제로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군병들이 그분의 심장을 찔렀을 때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분은 죽은 듯이 보였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확신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분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심장 주위에 있던 그 작은 액낭이 터지면서 물 같은 액체와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는데, 이로 보건대 그분은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 할 것이다.

This is all a part of God's plan, because these things were done that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였기 때문이다.

*Because these things were done, that the scripture should be fulfilled, A bone of him shall not be broken (19:36).*

That was prophesied in Psalm 34:20 and in Numbers 9:12. 이런 예언은 시편 34:20과 민수기 9:12에 기록되어 있다.

*And there is another scripture that says, They shall look on him whom they have pierced (19:37).*

That's in Zechariah chapter twelve. So these things were not just done happenstance. This was just not the capricious action of a Roman soldier. This is a part of God's divine, ordained plan that God wrote about over five hundred years and over a thousand years in advance of the actual happening. It's like us sitting down and writing about something that's going to happen to a man who will be on the earth a thousand years from now or five hundred years from now and start giving details of how this person is going to be put to death. And add all of these little extra interesting kind of details and then have it come to pass five hundred years later. You see how impossible that would be. It proves that the scriptures are divinely inspired by God and it proves that Jesus indeed was the promised Messiah. No one else could fulfill these prophecies or have fulfilled them, only Jesus. 이것은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어쩌다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예정된 계획의 일부였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500여 년 전에 아니 일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해 두셨던 것이다. 이는 마치 지금 자리에 앉아서 향후 일천 년 후에 또는 오백 년 후에 지상에 태어나게 될 사람에게 발생할 일을 기록해 두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그 모든 일어날 지극히 세부적인 사항들을 오백 년 전에 흥미진진하게 기록한 뒤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하겠다.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거룩한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며,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라는 점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그 누구도 이런 예언들을 성취시켰거나 성취되게끔 할 수 없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

*Now after this Joseph of Arimathaea, being a disciple of Jesus, but secretly for fear of the Jews (19:38),*

We were told earlier that there were many among the Pharisees who believed in Jesus but secretly because they feared the Jews because the Jews had already decided that if anybody believ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y would not be allowed in the synagogue. And so there were these secret disciples and it's interesting how that His disciples had forsaken and fled,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Smit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Zechariah 13:7). So they had fled. But here now, the secret disciples step forward. 우리는 앞에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 비밀리 믿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있었다. 본문에 나오는 은휘하던 제자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그 모두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슥 13:7).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그런 연고였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비밀리에 믿던 제자들이 드러나게 행동을 취하고 있다.

Again that's interesting and it's a lot like human nature. There are some people who in minor things fall apart but in major things, they really stand out. My dad was that way. He could take any kind of a major catastrophe and handle it well. But the little things would drive him buggy. He could get irritated over the smallest things. But let something really major happen and man, he was just the man of the hour. He was cool, he was collected, he was able to just handle things and direct traffic and everything else. But it was just the little things that he couldn't handle in life. 이것 역시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흡사하게 그려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조그만 일에는 뒤로 물러가다가도 큰 일을 당하면 홀연히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부친이 그랬다. 그분은 중대한 일이 터질 때마다 앞장 서서 차분하게 일을 잘 처리 하곤 하였다. 그러나 작은 일이 터질 때면 그분은 공연히 흥분을 하곤 했다. 극히 작은 일인데도 안절부절못하였다. 하지만 진짜 중대한 일이 터지기만 하면 그분은 그 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한편 교통 정리까지 깔끔히 해치우는 분이였다. 그러나 인생에서 당하는 작은 일들은 그분이 도무지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Here's Joseph of Arimathaea, a secret disciple because of the fear of the Jews. But here at this time, he steps forward. He goes to Pilate and,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있다.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 비밀리 제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때를 당하자 그는 과감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청했다.

*Asks permission to take away the body of Jesus (19:38):*

Pilate was surprised that Jesus was already dead. He inquired of the centurion and he was confirmed by the centurion to be dead and so, 빌라도는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백부장에게 물어보았다. 백부장은 그가 죽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자,

*he gave Joseph the body of Jesus. And there came also Nicodemus (19:38,39),*

We know that name back in John chapter three. He was a ruler of the Jews, he was among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he was of the Sanhedrin, that is the religious ruling class. He came out also. He was the one, John tells us,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공회원들 중의 일원이요 종교적인 지배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도 앞으로 나아왔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었다.

*who came to Jesus by night, and he brought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about a hundred pound weight (19:39).*

That would not be a hundred pounds our pounds, but this was a measure of weight that was translated pounds.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량형으로 환산하면 100파운드가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Then they took the body of Jesus, and wound it in linen clothes with the spices, as the manner of the Jews is to bury (19:40).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19:40).

They would take this linen cloth and they would wrap it around the body. Around and around and around. And they would put the spices in between the wrappings. They would wrap it and then lay spices and wrap it and all. That was their traditional way of embalming a body, so to speak, before they put it in the sarcophagus or the tombs, which were of limestone. The reason why they were called sarcophagus is that the limestone does cause the flesh to disintegrate very quickly. Sarcophagus in Latin is flesh eater. So a sarcophagus would be used over and over again because they would eat up the flesh very rapidly and so you could put the next generation in the same sarcophagus. So they were quite handy burial places. And so they “wound it in the linen clothes with the spices, as the manner of the Jews is to bury.” And then John tells us, 그들은 그 세마포를 가지고 시신을 쌌다. 두르고 또 두르고 또 둘렀다. 그러면서 세마포 사이 사이에다 향품을 넣었다. 향품을 넣고 두른 다음에 꼭꼭 쌌다. 그들은 석회로 된 석관(石棺)에다 즉 무덤에다 매장하기 전에 향을 넣어 시신을 입관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좇아서 그리 했다. 그것을 석관이라고 부른 이유는 석회가 시신을 아주 신속히 썩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틴어로 석관은 ‘고기를 뜯어먹는 자’란 의미이다. 그 석관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석관에다 넣으면 시신이 아주 신속히 부패하게 되므로 다음 세대의 사람을 그 동일한 석관에다 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석관은 매우 편리한 매장도구가 되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 다음 구절을 보라.

*Now in the place where He was crucified there was a garden; and in the garden a new sepulchre, in which was never a man yet laid. There they laid they Jesus therefore because of the Jews' preparation day; for the sepulchre was nigh at hand (19:41,42).*

I trust that you'll be able to go to Jerusalem with us. We're going again in February. It's very graphic to

sit there in the garden and to look on the hill above you, see the red poppies there on the hillside and realize that that is very possibly the site where the cross was and the garden tomb that you see down in front of you is quite possibly the tomb in which Jesus was laid for the three days. We describe it as best we can with words but one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and I think just sitting there is worth ten thousand words as you just can get the whole picture of the place where He was crucified, the garden nearby and in the garden, the tomb where He was laid. So let's pray that God will provide for you. It's a trip of a lifetime. One that will leave lasting impressions. It's worth a year of seminary, at least, just to be there. 나는 우리가 다 함께 예루살렘을 가 보게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오는 2월에 한 번 더 갈 예정이다. 거기 동산에 앉아서 건너편 언덕을 쳐다보면 매우 생생한 그림이 펼쳐진다. 붉은 양귀비가 출렁이는 구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장소였을 것이며 눈 앞에 바짝 다가와 보이는 동산의 무덤은 아마도 예수님이 사흘 간 누워 계셨을 장소이리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거기 앉아 있노라면 일만 마디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장소, 그 근처의 동산과 동산 안의 무덤 등을 세밀히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여행이 될 것이다. 그 여행에서 얻어진 감명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거기 한 번 가 보는 것은 일년 동안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Father, we thank You again for the love that You manifested towards us when You allowed Your Son; in fact, You sent Him to fulfill all of the prophecies knowing that He would be despised and rejected, knowing that He would be physically abused, knowing that He would be submitted to the tortures of the scourging and the tortures of the cross. And yet Lord, Your love for us is so great that You were willing to give Your only begotten Son in order that He might make possible our coming to You and fellowshipping. O Lord, our Lord, how excellent in Your name in all the earth! How marvellous are Your works, how infinite Your love. Lord, we love You and we thank You that You first loved us and gave Your Son for our redemption. Thank You, Jesus, that You were willing to obey the Father, go to the cross and make the way to eternal life. Lord, help us that we might adequately express our love to You by our deeds and by our actions. Not hoping that through them we can be saved but Lord, just letting them be expressions of appreciation for what You have don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때 보여주신 사랑을 인하여 당신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당신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물리적으로 학대를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도 크므로 당신은 흔쾌히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께로 다가가서 당신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오 주여, 우리 주시여, 온 땅에서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당신의 행사가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당신의 사랑이 어찌 그리 무한한지요! 주여,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감사하는 것은 당신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시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감사하는 것은 당신께서 자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당신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통하여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여, 그것은 당신께서 하신 일에 대한 단순한 표현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